



‘2025 용봉인 영예대상’ 김웅기, 김철수 동문 선정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세계 18개국 글로벌기업 운영 ... 대학, 지역사회, 국가 발전에 탁월한 공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소외된 불우이웃과 재해현장 봉사 활동 돋보여, 의사로서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증진 헌신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전남대총동창회(회장 류해경)는 5월 26일 ‘용봉인 영예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9회 ‘2025 용봉인 영예대상’에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과 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봉인 영예대상’은 전남대 총동창회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통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선정해 매년 개교기념식장에서 수여한다.

김웅기 동문은 1974년 전남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세아상역(주)를 설립한 후 세계 1위 의류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세아상역을 필두로 인디에프, 태림, 쌍용건설, 전주페이퍼, 테그라, S&A, S2A 등을 잇달아 인수하거나 설립해 ‘섬유/패션’, ‘건설’, ‘제지/포장’, ‘문화’ 등으로 그룹의 4대 핵심사업을 구축했고, 자본금 500만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매출 5조 규모

의 전세계 18개국에서 약 7만 명의 임직원이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세아그룹으로 발돋움시키면서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외교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아이티 지진 당시 대규모 재건 활동으로 클린턴 부부와 각별한 관계를 맺은 일화는 유명하다.

김철수 동문은 1969년 전남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양대, 한림대, 가톨릭대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맡으며 의료 발전에 힘썼다. 전국중소병원협회 회장, 한국병원협동조합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한국 의학교육협회 회장, 대한에이즈협회 회장,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등을 맡아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2023년 8월 제30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소외된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와 재해현장 구호활동을 통해 적십자 박애정신 실천에 앞장서왔다.

시상은 6월 5일(목) 17시 전남대학교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개교 73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관련기사 4면>

김병주, 김경호, 문재웅, 임성복, 이동원 동문, ‘2025 자랑스러운 전남대인’ 선정



김병주 자문위원



김경호 자문위원



문재웅 부회장



임성복 부회장



이동원 부회장

전남대학교는 2025년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본회 김병주 자문위원, 김경호 자문위원, 문재웅 부회장, 임성복 부회장, 이동원 부회장을 선정했다.

김병주(대학원 경영학 석사·93) 동문은 군 복무 중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하고, 육군 제2포병여단장,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대장) 등 군 요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전역 후 제21대 국회의원, 제22대 국

회의원에 당선되어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한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사태 이후 비상한 국가상황을 정상화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 전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받았으며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김병주 동문은 “이렇게 영예롭고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소감을 전하며 “전남대학교는 세계 학문의 터전이자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곳이다. 학창 시절

배운 공동체 정신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은 지금의 저를 만든 중요한 자양분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병주 동문은 “전남대의 가치와 비전은 정치인의 길을 걷는 내내 실천하고자 하는 소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남대 동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며, 국회에서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경영·79) 동문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

문한 후 영등포구 문화공보실장, 서울특별시 기획조정계장, 구로구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광진구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시의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등 요직을 역임하였고, 2022년 광진구청장에 당선되었다.

문재웅(기계공학·85) 동문은 1991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생기계획팀장, 소하리공장 2공장장, 생산혁신실장, 생산기획사업부장 등 사내 주요 직책을 역임했고 2024년 1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공장장에 취임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제12회 광주상공대상(고용우수부문)’을 수상하였다.

임성복(사법·82) 롯데호텔에 입사하여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총지배인, 롯데호텔 제주총지배인·경영지원부문장·하노

이총지배인·해외운영본부장,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CSV 팀장(전무)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2024년 1월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부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동원(정치외교·84) 동문은 1988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하여 MBN 사회부 기자를 거쳐 사회생활부장, 정경부장, 산업부장, 신규사업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상무이사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한국 언론발전에 공헌하고, 2022년 9월 MBN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총동창회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동문들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제37대 회장단

“연대하는 48만 동문의 힘으로 시작합니다”

명예회장



이근배 (의대)
전남대학교 총장

회장



류혜경 (의대)
서광병원 병원장
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

이사장



오형석 (인문대)
탐솔그룹 회장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 (농생대)
광주공고장학재단 이사장

상임부회장



이승행 (사회대)
팬갤러리아 회장

상임부회장



양부남 (법대)
국회의원



정신 (의대)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김현화 (인문대)
여성벤처협회 회장



오경미 (사범대)
두암중학교 교장



김경태 (경영대)
광주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김재봉 (의대)
신세계안과 대표원장



이계영 (경영대학원 석사)
금호고속(주) 총괄사장



서영숙 (생활대)
진명공예 대표



윤영주 (경영대)
탐솔리(주) 상무



임선숙 (법대)
로그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명이 (간호학·석사)
전남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김성민 (경영대)
㈜산하에코종합건설 회장



박명숙 (자연대)
㈜온돌라이프 대표이사



장정희 (법대)
법부법인 감동으로 대표변호사



정승기 (농생대)
힐링파머스 대표이사



김용준 (예술대)
타라스페이스 대표



윤경철 (의대)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



전진숙 (자연대)
국회의원



임미선 (사범대)
삼성생명 명인



홍기천 (경영대)
동은(주) 대표이사



강창우 (공대)
(주)에스원 경인본부장

집행위원(부회장)



김종선 (의대)
첨단우리병원 원장



정혁준 (법대)
삼성전자 상무



고병운 (산업대학원 석사)
지오구조안전진단 대표이사



홍승기 (경영대)
삼성생명 광주지사장



이지현 (경영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원



민정준 (의대)
화순전남대병원 병원장



이애경 (간호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집행위원(부회장)



황윤찬 (치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이재봉 (경영대)
일우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경은 (법대)
법률사무소 인익로 대표변호사

장학재단 감사



김정민 (경영대)
양지회계법인 회계사



이성길 (법대)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박인철 (법대)
금호건설 대외협력 상무

부이사장



강승희 (농생대)
골프존파크 매월VIP 대표

김제성(경제·86) 한남유리 대표, 본회 수석상임부회장 임명장 전달식

본회는 김제성(경제·86, 경영대학 동창회장, 한남유리 대표) 수석상임부회장 임명장 전달식을 5월 29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열었다.

김제성 수석상임부회장은 1993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한남산업(주) 이사, 2006년 합자회사 한남유리 대표이사, 2017년 주식회사 한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제성 수석상임부회장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능성 단열 복층 유리 생산

과 시공을 통해 친환경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성실납세 등을 통해 모범적인 기업가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또 지속 성장 비즈니스 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고해 지역사회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자랑스러운 전남대 경영대인'으로 선정됐다.

2010년 중소기업청장 표창(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 Biz), 2014년 광주광역시 시장 표창(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기여공로), 2015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15 건설의 날)을 수상했고 현재 법무부 법사랑광주지역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창학 116주년·개교 73주년, '용봉인의 밤' 성료

“우리의 미래를 향한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



용봉인의 밤 단체사진



왼쪽부터 이근배 총장, 류혜경 총동창회장, 전진숙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근배 모교 총장 환영사



임성주 서울동창회장 축사



이학영 국회 부의장 축사



김용기 글로벌세이그룹 회장 수상 소감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6월 5일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개교 73주년·창학 116주년 기념식 이후 '용봉인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혜경 총동창회장, 전·현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전임 총장단, 총동창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 공연을 관람하고, 수상자들의 소감을 공유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용봉인 영예대상'을 수상하신 동문님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선정된 동문님들께 축하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창학 116년 개교 73년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총동창회는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용봉인영예대상 김용기 글로벌세이그룹 회장은 “용봉인영예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전남대를 졸업한 기업인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에 헌신하기 위해 더욱 도전하고 정진하라는 의미임을 알고 노력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

했다.

이근배 모교 총장은 “73년 동안 전남대학교는 시대의 요구에 항상 행동으로 답했다. 이제는 치열했던 시대가 남긴 정신을 새 도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며 “급변하는 시대와 지역대학의 위기를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 한 번 위대한 족적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용봉인영예대상’ 김웅기(섬유공학·70)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창조적인 미래는 꿈꾸는 자의 산물”

500만 원으로 창업, 매출 5조원대 그룹으로 키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더욱 정진할 터”

“용봉인영예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닌 함께 노력해 온 글로벌세아그룹 전체 임직원들과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세아가 진출한 각 국가 정부의 협력과 지원의 결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용봉인영예대상’을 수상한 김웅기(섬유공학·70)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은 글로벌 섬유 패션 업계에서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서른 다섯에 퇴사하고 1986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글로벌세아의 모태인 세아상역(당시 세아교역)을 창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 일궈냈다.

세아상역의 하루 평균 의류 생산량은 250만 벌로, 미국 대형 유통사인 월마



트, 타겟, 폴스, 갭 등에 수출한다. 글로벌세아그룹은 섬유/패션(세아상역 등), 제지(태림, 전주페이퍼 등), 건설(쌍용건설 등), 문화(S2A갤러리 등)의 4대 핵심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 5조원대, 자산규모 8조원대의 대기업으

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경영인 김웅기 회장에게 전남대학교는 모교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청춘이 무르익는 중요한 시기인 대학 4년 동안 전남대 캠퍼스에서 미래

에 대한 꿈을 꾸었고 희망을 설계했다”는 김웅기 회장은 “창조적인 미래는 꿈꾸는 자의 산물입니다. 꿈과 희망을 설계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도전자입니다. 실패는 용기와 도전 그리고 불굴의 노력을 결코 꺾지 못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용봉인영예대상은 전남대를 졸업한 기업인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에 헌신하기 위해 더욱 도전하고 정진하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거대한 물길을 바꾸는 경영을 해온 김웅기 회장,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을 향한 모험과 도전은 계속될 예정이다.

‘용봉인영예대상’ 김철수(의학·63) 대한적십자사 회장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 찾아줄 터”

소외된 이웃과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 펼쳐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으로 최선”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5년 용봉인영예대상을 수상한 김철수(의학·63, 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47년간 소외된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 봉사를 펼쳐 왔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병원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벌였다.

김철수 회장은 개인 의원을 민간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킨 의료 경영인이자, 오랜 기간 사회 곳곳에서 취약계층을 돌본 봉사자로 평가받으며 2023년 대한적십자사 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철수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기 동안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고난에 처한 이재민 결을 든든히 지켜주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 덕분에 용봉

인영예대상을 받게 되어 송구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서 “점차 빈번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맞서, 고통받는 이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든든한 희망의 등불이 되고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해 따뜻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남대에서 청춘을 보내면서 진정한 명의란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언제 어디서든 환자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배웠다”라는 김철수 회장에게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청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은 78세에 발표한 시 ‘청춘’에서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단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은 아니며 이상을 버릴 때 우리는 늙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이상을 품고 ‘영원한 청춘’이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이다.

본회 초청, 우원식 국회의장 명예박사 영득 축하 만찬

전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 기념 ... '광주민주시민사회·종교계 만남의 날'로 의미 더해



류혜경 총동창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초청 우원식 국회의장 명예박사 영득 축하 만찬 모습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 초청 '국회의장 명예박사 영득 축하 만찬-광주민주시민사회·종교계 만남의 날'이 5월 16일 오후 6시 30분, 라마다플라자충장호텔 13층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정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진행된 모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 기

념으로 마련됐다.

앞서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16일 오후 3시 30분, 용봉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 수여식은 우원식 의장의 주요 활동 이력이 소개된 뒤, 이근배 총장과 주정민 대학원장이 공동으로 수여했으며, 류혜경 총동창회장이 회원증서를 전달했다.

'국회의장 명예박사 영득 축하 만찬'에는 본회 류혜경 회장,

오형석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국회 관계자, 시민단체 및 종교계, 모교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우원식 의장의 행보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성과 정의, 생명과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적 성찰을 실천으로 확장해 온 철학적 리더십의 표상"이라고 평가하며 전남대 동문들을 대표해 축

하를 전했다.

이근배 총장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의 순간, 흔들림 없는 결단력과 책임감, 강한 리더십으로 헌정 질서를 지켜낸 우원식 의장님께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전남대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온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1980년 5월 광주로부터 비롯되었다"며, "광주가 열어준 길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했고, 지금은 강력한 시민정신과 문화적 DNA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 그 상징인 전남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혜경 전남대총동창회장, 모교에 발전기금 2억 기부

류혜경 서광병원 병원장(전남대학교총동창회장)이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했다. 이로써 누적 기부액은 5억 원에 달하게 됐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군인 서해현 서광병원 대표원장, 류경주 서광병원 경영원장, 김제성 전남대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영필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장이 함께했으며,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김양현 교학부총장, 고성석 연구부총장, 주정민 대학원장, 김경수 입학처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박형규 대외협력부처장 등 전남대 주요 보직자가 참석해 류 회장의 뜻깊은 기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류혜경 회장은 이번 기부 외에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부부 10호 회원이기도 하다

류혜경 회장은 1982년 전

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의학석사(1985)와 의학박사(1988)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남지역 다수 병원을 거쳐 2000년에 서광병원 병원장에 취임하였다.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이

탈주민 무료 검진,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수술 등 형편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적극 보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자문위원, 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 전

남대학교총동창회장 등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3회, 보건복지부 표창 2회,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2회 등을 수상하였다.

류혜경 회장은 "형편이 어려웠던 대학 시절, 후원으로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모교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후학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근배 총장은 "류혜경 회장의 기부는 대학과 후학을 위한 나눔 실천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라며 "류혜경 회장의 뜻을 받들어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I 이근배 총장 - 창학 116년 개교 73주년 기념사

“지역이 살리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오늘 기념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전남대학교는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서 있었습니다.

1952년 6월, 한국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절실한 소명 아래, 진리·창조·봉사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73년동안 전남대학교는 시대의 요구에 항상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1960년 4·19때, 정치 간섭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1970년대 유신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군부독재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가장 먼저 독재타도를 외쳤고, 1985년에는 교육지

표 사건을 통해 전국 대학가에 교육자 율화 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전남대를 ‘민족, 민주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언제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시대를 밝히는 횃불이었습니다.

이제 전남대학교는, 그 치열했던 시대가 남긴 정신을 과거로만 남겨두지 않고, 새 도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역대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 위기를 지역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지역이 살리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을 이루기 위해 전남대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재를 길러내며, 지역과 함께해 온 73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이번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가는 길이 지역의 내일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 한번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2025. 6. 5

전남대학교 총장 이근배

존경하는 전남대학교 가족 여러분, 신록이 짙어지는 6월입니다.

이틀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뜻깊은 주간에, 전남대학교가 개교 73주년, 창학 116주년을 맞게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I 류혜경 총동창회장 - 창학 116년 개교 73주년 기념사

“지역과 나라를 넘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류혜경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근배 총장님과 교직원여러분께 개교 7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용봉인영예대상’을 수상하신 동문님,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 선정된 동문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연구역량으로 용봉학술상을 수상하신 교수님들과 장기근속 교직원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과 동문 그리고 재학생여러분!

우리 대학은 1909년 광주농업학교로 개교하여 일제강점기에서도 민족정신을 잃지 않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옥고를 치르고 제적당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고급인재 양성만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1952년 도립 농대와 도립 의대, 도립 상대, 사립 대성학원 그리고 공대를 신설하여 통합 국립전남대학교로 개교한 이래 70여 년 동안 기라성 같은 인재를 배출하면서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짊어져 왔습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를 위한 불타는 열정으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여 많은 동문과 교수들이 구속되고 제적과 해직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과 ‘5·18광주 민주항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는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 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 연구역량도 성장 발전하여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창학 116년 개교 73주년은 우리의 미래를 향

한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과 나라를 넘어 글로벌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동문 그리고 재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용봉가족여러분!
총동창회는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48만 동문들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모교발전에 진력하겠습니다.

창학 116년, 개교 73주년을 다시 축하하며 모든 용봉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5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

교정의 질푸른 신록이 상큼합니다. 활기 넘치는 후배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6월, 창학 116년, 개교 73주년을 48만 동문과 함께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신 내 외빈과 원로선배, 동문, 그리고 재학생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함께 세계로 미래로! Together CNU’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역사회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이

허정 전 총동창회장, 모교에 발전기금 5천만원(누계 4억 7천만원) 전달

본회 허정(의학·70) 고문이 모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남대학교는 6월 2일 대학 본부 5층 접견실에서 모교 이근배 총장, 김양현 교학부총장, 고성석 연구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본회 김영필 총동창회 사무처장, 정주영 총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식을 열었다.

허정 원장은 “전남대 출신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많은 동문들이 세계로 나가는 전남대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 고문은 1976년 전남대 의과



대학을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993년 개원한 에덴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재임 때 적십자회비 등 1

억 5,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 전국 128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광주전남혈액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기부금품 모금과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20여 년 동안 11억 원이 넘는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허정 고문은 모교인 전남대에도 지금까지 4억 7,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제31대 전남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사회장(2006), 대한의사협회 부회장(2007) 등을 역임했다. 제1회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2006),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12)을 받았으며 국민훈장포상(2022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제60주년 광주시민의 날에는 ‘광주시민대상’이라는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다.

본회 회장단, 5·18 민주묘역 참배 및 기념식 참석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 회장단이 5월 16일 모교 참배단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전남대학교 제45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는 본회

류혜경 회장, 오형석 이사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민주동우회장, 모교에서 이근배 총장과 대학평의원회의장, 각 단과대 학(원)장, 부속기관장, 신승환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는 ‘전남대학교 제45주년 5·18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 직후에는 5·18 광장에서 ‘대동주먹밥 나누기’ 행사가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가 ‘5·18 민주화운동 속 주먹밥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동체 정신의 배경을 짚어주며 참석자들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5·18 항쟁 기간인 5월 17일(토)에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이어지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졌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와 교수회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직능단체를 포함

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관계자, 민주노총 등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여수시

내 고함 여수를 살리고 혜택도 받는 1석2조

여수 고함사랑 기부제

여수고함사랑기부제란?

여수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여수시에 기부하고, 여수시는 이를 모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혜택 2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 여수사랑상품권
- 여수특산품(계장, 갯김치, 말치 등)

기부방법

온라인

고함사랑+를 접속 및 가입
→ 지자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여수시)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여수시)
→ 답례품 주문하기

고함사랑+를 바로가기 QR코드

지역선택에 답례품 배송지역 한정상품이 적용될 수 있음

오프라인

문의 여수시 징수과 고함사랑팀
061-659-5268, 5269, 5270

전국NHN은행 방문
기부금 납부
답례품 주문하기

여수사랑 고함사랑기부제

전남대학교, 창학 116주년·개교 73주년 기념식 성료

“지역이 살리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 다짐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지난 5일 대학 내 컨벤션홀에서 개교 7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류혜경 총동창회장, 정병석·지병문·김



윤수 전 총장을 비롯해 학생·교직원·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남대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응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학의 명예를 빛

낸 동문과 교내 구성원에게 각종 시상식이 이어졌다.

후광학술상은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용봉인 영예대상은 김웅기 글로벌세아 그룹 회장, 김철수 대한적십자

사 회장에게 수여됐다.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상은 김경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이동원 MBN 대표이사, 문재웅 기아차 광주공장장, 김병주 제22대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용봉학술상은 김도형 화학공학부 교수, 한의송 인문학연구원 부교수에 돌아갔다. 교내 우수 교직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지역사회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글로벌 명문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과 동문, 재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도 모교 발전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백의회, 정기총회 개최



백의회 나이팅게일상을 수상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미숙 간호사(사진 오른쪽)가 최명이 간호부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모임인 백의회가 5월 14일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행

사에서는 최명이 간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 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병원장, 김명선 빛고을병원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나이팅게일상에 화순전남대병원 63병동 정미숙 간호사가 선정됐으며 총 15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명이 간호부장은 “간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간호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최고 수준의 인간중심 전문 간호라는 미션을 실현하며 많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창회, 모교 민주길 탐방



본회 서울동창회 동문들이 5월 18일 모교 민주길을 따라 진행되는 투어에 참여했다.

정의길, 인권길, 평화길로 이어지는

이 길은 전남대학교가 품고 있는 민주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세대 간 기억과 가치를 잇는 소중한 여정으로 구성된다.

★★★★★★★★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8년 연속 1위

지방은행 부문

광주은행

Korea Brand Power Index

1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성장하는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25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5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윤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장, 류혜경 전남대총동창회 이사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회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조길우 재경전남의대 동창회장, 한상운 전남치대 동창회장, 조향훈 조선의대 동창회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 전남대병원장, 김명선 빛고을 전남대병원장 등 내외 귀빈과 약 1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김준태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된 1부 총회에서는 참가 귀빈 및 명예교수 소개, 원로 동문, 재경 동문들을 소개하였다.



서해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장

서해현 의과대 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의대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총장님, 학장님과 병원장님, 보직 교수님, 동창회 동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은 올해 81주년을 맞이하였고,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를 배출해 왔다”면서 “그 중심에는 동문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이 있었고, 모교의 자랑



정기총회 모습

이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윤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장, 류혜경 전남대총동창회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회사회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영구 재

경전남의대 동창회장, 조향훈 조선의대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자랑스런 동문상 사회봉사부문은 46회 김종선(고려인 광주 진료소장) 동문, 자랑스런 동문상 학술부문은 32회 조지현(원광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명예교수) 동문, 특별부문은 33회 최정섭(광주광역시의회사회장·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39회 이근배(전남대학교 총장) 동문이 수상

하였다. 공로패는 28회 고광일 전임 동창회장, 31회 이영구 전임 재경동창회장, 43회 박형욱 전임 동창회 총무이사, 43회 선종근 빛고을전남대병원장에게 수여하였다. 감사패는 올해 졸업 20주년 기념으로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할 예정인 전남의대 53회 졸업생에게 수여했다.

202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보고, 회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현 동창회 임원 소개와 체육대회 안내를 끝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부 만찬과 함께 진행된 식후 행사는 오경진 재무이사의 사회로 김종선 청년동창회장 소개 및 청년회 소식 전달, 각 지역 회장 소개 및 소식을 전달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참석해주신 동문들에게 증정했다.

본회 제95차 집행위원회 성료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 제95차(2025년 5월) 집행위원회가 5월 26일 송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제37대 총동창회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37대 총동창회는 ‘2026년 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사



업’ 진행을 위해 준비위원회 구성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 동창회관 이전, 동문 후생복지 시설 계획도 점검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시·군지부 조직 재정비 및 글로벌 용봉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재학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취업정보 공유, 창업 기틀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37대 집행위원회에서는 박명숙 상임부회장, 운영주 상임부회장, 김종선 상임부회장, 고병운 상임부회장, 오영수 경영자과정동창회장을 유사편성(1조) 하였다.

서울동창회 임원 워크숍 성료

모교, 목포, 흥도, 흑산도에서



본회 서울동창회(회장 임성주)는 모교 및 총동창회 초청으로 5월 18일 30명의 재경 동문들이 모교를 방문했다. 특히 민주동우회 위경종 회장과 김양현 부총장의 해설, 류혜경 총동창회장 및 임원진이 함께 민주동우회 동행해 더욱 의미 있었다.

이어서 서울동창회 24명의 임원진과 단체장들은 목포로 이동하여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과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일몰을 감상하며 친목을 다진 후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첫날밤을 보냈다.

다음 날 5월 19일에는 여객선을 타고 흥도에 도착하여 섬도보 탐방을 진행했다. 수려한 해상국립공원, 유람선 선상 관광을 2시간여 동안 맑은 날씨 속에서 마치고, 오후에는 흑산도로 이동하여 흑산도 버스투어로 명소를 탐방하고 흑산관광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에 이어진 만찬과 워크숍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과 재정 목표를 공유하고, 심재곤 상임감사를 차기 서울동창회장으로 추대하고 수락하였다.

/글=위성암 서울동창회 사무1총장

여수지부 및 화공계열 동문회 골프대회

본회 여수지부 및 화공계열 총동문회(회장 정권희) 골프대회가 5월 31일 순천 파인힐스 CC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지부 및 화공계열 동문 총 40여명이 참석해서 골프 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동문의 정을 나누었다.



경영대학 개교 75주년 행사 및 제 76회 전경포럼 개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개교 75주년 행사 및 제 76회 전경포럼이 5월 27일 경영대학 1호관 CBA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성 경영대동창회장(한남유리 대표), 윤영주 탑솔라그룹 상무, 정승재 아로마타임 대표 등 경영대 동문들을 비롯해 모교에서 이상준 전남대 경영대학 학장, 박성수 명예교수, 나주몽 교수를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전경포럼은 박성수 명예교수, 정용기 명예교수, 이상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이 '경영대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성수 교수와 정용기 교수

는 경영대학의 개교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교수님들의 생생한 기억과 함께 경영대학이 걸어

온 여정을 한 폭의 그림처럼 생동감 있게 그렸다. 이어서 이상준 학장은 경영대학이 직면한 현실과 주요 성

과들을 다양한 통계 자료와 함께 분석하며, 현재의 위상과 과제를 진단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경영대학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었다.

김제성 경영대동창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 주신 선배, 동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경영대학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과 후배들을 위한 선배들의 역할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쳐 더욱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고 밝혔다.

ROTC동문회, 야유회 및 현충원 참배 행사

ROTC총동문회(회장 이진용) 춘계야유회가 5월 17일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과천 서울대공원 숲길 걷기에 이어 국립 현대미술관 상설전 '한국 근현대 미술전1'을 관람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어 ROTC총동문회는 5월 30일 학군단 후보생과 함께 대전현충원 12위 안장동문 묘소를 참배하였고, 6월 3일에는 임원진 6명이 서울 동작현충원



11위 안장동문 묘소와 봉안당을 참배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참배

행사는 학군단 후보생과 동문회의 합동참배로 확대 실시했다.

무등지구 모임



본회 무등지구(회장 장영태) 모임이 5월 26일 두암동 '등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장영태, 김창

현, 윤현두, 이호근, 김창호, 강경민, 이태욱 동문이 참석해서 근황을 나누고 친목을 다졌다.

www.s-class.co.kr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

다도의 풍광에 마음을 치유하는 해남 달마산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5년 6월 정기산행기

6월 7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몇 달 만의 맑은 날씨에 부푼 기대를 안고 해남 달마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해남 달마산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해발 489m의 산으로,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다.

우리 산악회는 지난 2018년 5월에 이미 달마고도를 다녀간 적이 있다. 이번 산행은 미황사에서 출발하여 달마고도를 따라 걷다가 도솔암까지 다녀오는 코스를 선택했다. 무더운 날 그늘진 숲길을 따라 걷다가 도솔암에 올라 다도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어, 몸도 시원하고 마음도 치유가 된다.

미황사 주차장에 도착한 회원들은 미황사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임도(林道)를 따라가다 숲길로 들어섰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눈앞이 확 트인다. 달마산의 암릉(巖稜)이

부서져 내린 너털지대로, 자연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 다시 산행을 이어갔다. 삼나무 숲길을 지나면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된다. 한참 뒤 오르막 끝 절벽 위에 작은 암자가 나왔다. 도솔암이다. 암자의 모습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도 참으로 멋지다. 도솔암에 오르면 앞뒤로 해남의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도솔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은 암자가 나왔다. 도솔암이다. 암자의 모습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도 참으로 멋지다. 도솔암에 오르면 앞뒤로 해남의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도솔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은 암자가 나왔다. 도솔암이다. 암자의 모습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도 참으로 멋지다. 도솔암에 오르면 앞뒤로 해남의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도솔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솔봉을 향해 하산을 시작했다. 도솔봉 주차장을 지나 임도를 따라 내려가다, 도착지 바로 앞 쉼터에서 시원한 곡차를 나눠 마시고 더위를 식히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7월 5일(토요일)에는 명산기행을 주제로 보성 천봉산을 가고, 8월 2일(토요일)에는 시원한 계곡을 주제로 백운산 백운암 계곡을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양궁용 수석부회장 겸 수석총무(010-2533-5243)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김선생의 광주사랑” ④2 무등산 춘설헌의 이름에는 어떤 사연이?

글·그림=김길남 (지리교육·77) 동문

무등산에는 동양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과 관련된 장소가 몇 군데 있다. 의재 미술관은 선생의 작품과 문방사우를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선생이 거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건물도 있다. 춘설헌이다. 춘설헌은 이름이 세 번 바뀌었다. 의재 미술관 3층에 가면 나무 현판이 하나 걸려있는데, 여기에 춘설헌의 옛날 이름이 새겨져 있다. 현판의 한 면에는 석아정, 다른 면에는 오방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있는 것이다.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은 2·8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광주가 낳은 독립지사 최원순이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자 요양을 위해 무등산 기슭에 작은 집을 지었다. 집의 이름은 석아정이라 하였다. 자신의 호가 '석아(石峴, 돌병어리)'였기 때문이다. 최원순 선생은 세상을 뜨기 전에 '석아정'을 친척이었던 최홍중 목사에게 물려주었다. 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집의 이름은 '오방정'이 되었다. 최홍중 목사의 호를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섯 가지 욕망을 버린다는 의미를 가진 오방(五放)에는 최홍중 목사의 깊은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오방정은 최홍중 목사를 만나러 오는백범 김구, 함석헌 등 많은 위인들이 드나들면서 광주의 명소가 되었다.

집의 이름은 한 번 더 바뀐다. 윗쪽에 새 집을 마련한 최홍중 목사가 집을 의재 허백련 선생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집은 '춘설헌(春雪軒)'으로 바뀐 뒤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의 이름에는 의재 선생이 무등산에서 재배하던 차의 이름이 담겨있다.

오방 최홍중 목사와 의재 선생은 말년에 2세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무등산 골짜기에 농업학교를 세웠다. 지금의 의재미술관이 세워진 터는 최홍중 목사와 의재 허백련 선생이 세웠던 농업학교가 있던 자리다.

척추엔 심표를, 삶엔 느낌표를!

지금은 당신의 허리를 쉬게 해줄 시간

정형외과
김종욱(83인) / 김형석(84인) / 이문(86인)
김종선(92인) / 김도연(99인)

통증의학과 한상도(86인)

영상의학과 김용균(06인)

첨단우리병원 | TEL. 062) 970-6000
익산·완주·전원병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야산업(주)
Daeya industry Co., Ltd.

대표이사 **김종구** (신대원 토목공학)

토목, 기반조성포장(토공, 포장, 보링)
철근, 비계, 상하수도, 토목설계, 측량

ISO-9001, ISO-450001 인증
삼성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기업

저희 대야산업(주)는 고도화·전문화된 기술력과 수행능력을 쌓아 공중을 특화시켜 전국적인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화공종 · 터널 및 도로/해상구조물 및 대형교/상하수도

본사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길 72 / Tel. 061.453.0641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3번길 5 / Tel. 062.375.6750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계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조형호(의학·91) 동문

‘교육발전 기여’ 장관 표창



조형호(의학·91,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동문이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형호 동문은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개방형실험실 구축 사업단장으로 석·박사 학생을 지도했으며, 의료기술 사업화와 지도학생의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등 우수 의사과학자 육성에 기여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형호 동문은 “의료 현장은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를 갖춘 의사 과학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문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써 이들이 진료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허경(미술교육·92) 동문

‘주미디어아트 플랫폼’ 센터장 선임



김허경(미술교육·9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연구교수) 동문이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G.MAP, 지맵) 신임 센터장으로 선임됐다. 김허경 동문은 6월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김허경 동문은 전남대 예술대학 1호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원 및 미술평론가로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10주년 아카이브전 연구 게스트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 김재민(의학·85) 동문

연구상 수상 상금 전액 기부



김재민(의학·85, 전남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동문이 최근 수상한 연구상 상금 전액인 2천만 원을 전남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김재민 동문은 ‘2025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明(명)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전남대학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금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해곤(섬유공학·54) 동문

영암 왕인박사 제례 집례



김해곤(섬유공학·54) 동문이 ‘왕인박사 현창회’가 매년 주관하는 ‘왕인박사 제례 행사’를 초헌관으로 집례하였다. 김해곤

동문은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영암군을 향한 변치 않는 애향심으로 영암군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왕인박사 현창협회는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왕인문화축제가 연기되자 지난 4월 28일 김해곤 박사를 비롯한 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왕인 사당에서 고유제를 간소하게 봉행했다.

■ 양혜령(치의학·81) 동문

‘청소년통일공감 강연회’ 성황리 개최



대통령직속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양혜령(치의학·81) 동문이 6월 4일 오후 2

시,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교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공감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 황현필(역사교육·95) 동문

‘전라도 역사이야기’ 초청 강의



황현필(역사교육·95,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동문이 한국학호남진흥원 주최 ‘전라도 역사이야기’ 강연을 5월 29일 순천 전남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열었다. 한국사 감사이자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상을 보유한 황현필 동문은 이번 강연에서 ‘3·1운동 이후 지역 민족운동 조직의 형성과 확산’을 비롯해 ‘해방 전후 전라도의 정치·사회 변화’, ‘민중 주체의 항일운동 사례’ 등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이번 강연은 “역사적으로 전라도는 의병과 항일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지역”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면면히 내려오는 전라도의 정신, 역사적 정체성 등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받았다.

진리 · 창조 · 봉사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를 위한 주거명적 최고급 단독주택단지

도심 숲 속 그리고, 안전한 저택
그랑빌 더 포레

명당에 살다.
| 이 만 선(경관 25기) |

샘플하우스 운영중
062.653.0320

시행 (주)그랑빌주택 | 시공 (주)그랑빌

진리 · 창조 · 봉사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광주전남화약(주) 대표이사 정치성
-회학과 83후, 행정대학원 05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김영남(전기공학·70) 동문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지요’ 출간



김영남(전기공학·70) 동문이 자서전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지요(교보문고)’를 출판했다. 김영남 동문은 75년 인생의 삶과 성장 기록 등을 기록으로 남겼다. 김영남 동문은 “나의 삶이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엮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 서울용봉라이온스클럽

글로벌 봉사 단체 회원 모집



전남대학교 재경 동문을 중심으로 1979년 시작한 서울용봉라이온스클럽은 현재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월 1회 월례회를 통해 지역 봉사 활동과 친교를 진행하는 글로벌 봉사단체의 모범적인 서울용봉라이온스클럽에 참여하고 싶은 동문들은 이관섭(010-5596-1000) 동문에게 연락하면 된다.

■ 손형섭(농업경제·63) 동문

두 번째 시조집 ‘새벽’ 펴내



손형섭(농업경제·63, 목포대 명예교수) 동문이 두 번째 시조집을 펴냈다. 이번 시조집은 1부 ‘첫차’를 비롯해 2부 ‘고향의 강’, 3부 ‘가을 산책’, 4부 ‘첫눈’, 5부 ‘인연’, 6부 ‘전라도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순 출신의 손형섭 동문은 광주상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거쳐 전남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목포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박준수(경제·83) 동문

‘황금물고기를 보았네’ 출간



박준수(경제·83) 동문이 여덟 번째 시집 ‘황금물고기를 보았네’(문학들)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박 시인이 오랜 시간 탐구해 온 삶과 시, 현실과 이상,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시적 사유가 더욱 깊이 있게 응축돼 있다. 그의 시는 남도의 정서와 함께 서정의 밀도를 더해가며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와 성찰을 건넨다.

■ 류현자(미술·88) 동문

광주예술의 전당서 개인전



류현자(미술·88) 동문의 개인전이 6월 1일까지 광주예술의 전당 갤러리에서 ‘사모곡-비우면서 채우는...’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광주예술의전당이 전시지원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한 것이다. 전통 한지와 오방색을 활용해 한국의 조형미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 온 작가는 ‘사모곡’ 연작시리즈를 통해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버선의 형태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범종(경영대) 동문

장편소설 ‘춘향의 친구’ 출간



정범종(경영대) 동문의 장편소설 ‘춘향의 친구’가 문학들에서 출간됐다. ‘춘향가’의 수많은 이본을 읽은 소설 속 윤도는 춘향을 위한 합창이 아닌 춘향이 관객을 위해 부르는 노래, 즉 춘향의 독창을 무대로 올리고 싶다는 새로운 해석을 찾고자 한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06월 30일(월) 용현회 기관방문행사(광양시)
- 10월 18일(토) 총동창회장배골프대회(무안CC)
- 11월 01일(토) 용봉인친선등산대회(충청)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 5월 17일(토) 의대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5월 26일(월) 용봉인영예대상 심사회의 제95차 집행위원회
- 5월 27일(화) 경영대학 개교75주년 및 전경포럼 행사
- 5월 29일(목)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
- 6월 05일(목) 개교 73주년 기념식 용봉인의 밤 행사
- 6월 07일(토) 제6회 총동창골프회장배 골프대회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

화순농협
[기분좋은 인생 화순농협과 함께 걸어요]
www.hwatsunnh.nonghyup.com

조합장 조 준 성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송로 74
Tel : 061-374-2356-7
Fax : 061-373-6856
E-mail : hwason2019@nonghyup.com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HRNIL 법무법인 한일
HANIL LAW CORPORATION

변호사 박수영
(정치외교학과 99입)
E : sooyoungp@hanilaw.com

주요업무분야

- 건설클레임 자문 및 소송, 대한상사원 중재
- 공공건설계약, 민간건설계약, 공사대금청구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간접비, 지체상금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39층
T : 02-6956-1301 F : 02-6956-1302
M : 010-2858-3082 www.hanilaw.com

(유)대영에너지
energy leader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성리 362-3
Tel : 061-782-7800, 782-8598
Fax : 061-782-8599

대표이사 전상선
(산업대학원 9기, 경영대학원 5기)

(주)대동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전남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2
Tel : 061-782-7766, 782-9880
Fax : 061-782-1333
E-mail : dd420902@hanmail.net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자 문 위 원 : 30만원 이상 부 이 사 장 : 20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 E-mail : cnud@hanmail.net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1~4월 분

임원회비 (1월 1일~4월 30일)

회 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상임고문

▲이기홍(법학·53) 30만원

▲최상준(건축공학석사·58) 30만원

▲허 정(의학·70) 50만원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고 문

▲구승룡(의학·72) 10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라석찬(의학·57) 50만원

▲배지수(요업공학·68) 5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50만원

▲임청택(경영·61) 30만원

▲주경석(법학·58) 30만원

자문위원

▲김만웅(최고경영자·5기) 30만원

▲공병철(정관·26기) 10만원

▲김성대(원예·73) 30만원

▲김재화(경관·98) 3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민형배(사회·79) 30만원

▲오광인(임학·65) 3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정기명(법학·81)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200만원

상임부회장

▲서영숙(가정관리·85) 300만원

▲고병운(건축공학석사·17) 300만원

▲김성민(무역·87) 300만원

▲김종선(의학·92) 300만원

▲오경미(상업교육·82) 300만원

▲이지현(경제·08) 2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300만원

▲정민호(경제·85) 300만원

▲정혁준(행정·93) 300만원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50만원

단과대학동창회장

▲박숙령(간호대학·74) 50만원

▲서해현(의과대학·75) 50만원

▲손희해(인문대학·75) 50만원

부회장

▲김남균(원예·82) 50만원

▲강훈열(사법·86) 50만원

▲고병일(경제·84) 50만원

▲김명군(사학·85) 5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50만원

▲김종춘(무역·78) 50만원

▲김현종(정치외교·90) 50만원

▲김현진(미술·90) 30만원

▲노재형(미생물·92) 20만원

▲노진양(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문기식(행정·79) 30만원

▲문 인(토목박사·96) 50만원

▲박명숙(국어국문·98) 50만원

▲박용수(과학교육·75) 30만원

▲서애련(사법·92) 50만원

▲양주열(행정·82)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오수진(법학·01) 50만원

▲이상식(회계·81) 50만원

▲이연풍(경관·14기) 50만원

▲임현정(컴퓨터정보·94) 50만원

▲정순근(행관·23기) 20만원

▲정해정(낙농·85) 50만원

▲조봉근(정책·92) 50만원

▲최춘태(농학·81) 15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50만원

상임이사

▲나용수(산관·1기) 20만원

▲서상우(정치외교·80) 20만원

▲이영주(약학·94) 30만원

▲최고산(21세기 최고지도자·30기) 30만원

▲최충명(정치외교·98) 30만원

이 사

▲전미희(식물생명공학·09)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4월 30일)

▲박은영(사회복지협동·11) 50만원

▲하주아(생활환경복지·13) 50만원

▲마영완(화학·83졸) 50만원

연회비 (1월 1일~4월 30일)

간호대학

▲김혜영(간호·91)

▲남상옥(간호·68)

▲문정선(간호·74)

▲서향자(간호·67졸)

▲안정옥(간호·77)

▲이종임(간호·82)

▲최영자(간호·73졸)

경영대학

▲강부암(회계·90)

▲김선윤(경영·83)

▲김영곤(경영·87)

▲김영철(경영·75)

▲김윤곤(회계·82)

▲김태수(경영·80)

▲민화식(경제·58)

▲박병춘(경영·80)

▲윤명호(무역·67)

▲이문규(무역·87)

▲이승국(행정·90)

▲정선호(무역·77)

▲최성주(경제·80)

▲한동철(무역·75)

▲한성수(회계·82)

공과대학

▲강대욱(토목공학·58)

▲강진해(금속공학·72)

▲김관현(토목공학·61)

▲김부용(화학공학·71)

▲김선식(화학공학·69)

▲김영남(전기공학·70)

▲김영무(전기공학·61)

▲김용백(건축공학·68)

▲김용재(금속공학·70)

▲김인구(토목공학·80)

▲김종근(건축공학·72)

▲김진해(화학공학·69)

▲김현호(금속공학·68)

▲김형주(화학공학·80)

▲박동주(전기공학·61)

▲박순식(토목공학·83)

▲백부선(화학공학·55)

▲서금렬(공업화학·85)

▲손동일(건축공학·83)

▲염종환(기계공학·78)

▲오상용(화학공학·69)

▲오일환(전기공학·76)

▲윤대좌(전기공학·72)

▲윤재화(토목공학·58)

▲이병길(화학공학·58)

▲이재동(토목공학·71)

- ▲이한묵(토목공학·58)
- ▲이한민(토목·87)
- ▲이현균(기계공학·79)
- ▲이형섭(금속공학·76)
- ▲장상욱(전기공학·72)
- ▲장 희(화학공학·77)
- ▲정유홍(기계공학·74)
- ▲정한수(건축공학·70)
- ▲정호채(기계공학·79)
- ▲지영섭(금속·64)
- ▲차승건(토목공학·72)
- ▲천양기(건축공학·70)
- ▲최문길(전기공학·70)
- ▲최연수(금속공학·81)

농업생명과학대학

- ▲기갑서(농업경제·68)
- ▲김규상(임학·62)
- ▲김성근(임학·62)
- ▲박금중(농학·73)
- ▲서영권(농학·69)
- ▲심재윤(농학·71)
- ▲이덕범(임학·77)
- ▲이영승(농화학·83)
- ▲이정욱(임학·69)
- ▲임행진(임학·52)
- ▲임형기(농업경제·67)
- ▲조홍근(농학·69)
- ▲최근영(국제·07)

문화사회과학대학

- ▲최안성(축산·82)
- 법과대학**
- ▲강한주(공법·86)
- ▲강현섭(법학·72)
- ▲강훈열(사법·86)
- ▲김성흠(사법·91)
- ▲김철영(법학·57)
- ▲박광호(행정·92)
- ▲박병칠(법학·75)
- ▲유영성(법학·79)
- ▲이두백(법학·69)
- ▲임성환(법학·74)
- ▲임정택(법학·63)
- ▲최태화(법학·58)
- ▲황의봉(법학·58)

사범대학

- ▲박종근(불어교육·78)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승오(국어교육·81)
- ▲장길수(생물교육·82)
- ▲정경모(영어교육·87)

사회과학대학

- ▲김양순(심리·87)
- ▲박하일(정치외교·54)
- ▲선국규(사회·79)
- ▲이남기(정치외교·84)
- ▲이은석(문헌정보·84)
- ▲한성수(정치외교·72)
- ▲김형국(정치외교·72)

수리과학대학

- ▲고태오(수리학·80)
- ▲문무광(수리학·61)
- ▲백병선(수리학·72)
- ▲성광일(수리학·53)
- ▲안익순(수리·69)
- ▲유동현(수리·56)

약학대학

- ▲김영란(약학·86)

의과대학

- ▲최정섭(의학·79)
- ▲김종성(의학·77)
- ▲박찬연(의학·85)
- ▲박형보(의학·55)
- ▲안현영(의학·76)
- ▲이기운(의학·79)
- ▲이유근(의학·61)

인문대학

- ▲강상욱(사학·88)
- ▲강성률(철학·79)
- ▲고지문(영어영문·59)
- ▲김양현(철학·80)
- ▲박창준(중어중문·84)
- ▲김재봉(국어국문·70)
- ▲지경래(국어국문·58)
-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 ▲김애리(계산통계·82)

치과대학

- ▲최준규(치의학·87)

교육대학원

- ▲윤희숙(교육석사·04)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경영전문대학원

- ▲고병선(경관·29기)
- ▲김석기(경관·38기)
- ▲백영팔(경관·38기)
- ▲임종학(경영석사·34기)
- ▲정광영(경관·27기)
- ▲허상배(경관·36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이일순(체육·16)
- ▲채복경(간호·05)
- ▲임근천(체육·18)

산업대학원

- ▲김진선(산관·10기)
- ▲민창식(산업공학·15)

정책대학원

- ▲오승준(행정·91)
- ▲신승수(행정·2)
- ▲윤인후(행정·92)
- ▲이길선(행관·25기)
- ▲전주언(행정·92)
- ▲정현철(행정·85)
- ▲최원섭(행정·4)

단과대학불분명
▲김종민
▲무기명(00·00)

2025년 5월 분

임원회비 (5월 1일~5월 31일)	
고 문	
이연익(수리·63)	3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30만원
자문위원	
강신영(화학공학·71)	30만원
공후식(경영석사·96)	3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문영수(경관·37기)	3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30만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최철수(전기·68)	20만원
부이사장	
박인철(행정·90)	50만원
장학재단 감사	
김정민(회계·90)	50만원
부회장	
김옥열(신문방송·85)	30만원
김재필(축산·82)	50만원
김평호(사법·89)	50만원
노형석(수학·88)	50만원
문병우(지역개발·86)	30만원
문재웅(기계공학·85)	50만원
박영용(행정석사·13)	50만원

박 원(행정·85)	20만원
서용규(중어중문·84)	20만원
손해수(수리·85)	30만원
심재연(간호·76)	5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30만원
이상소(행정석사·8)	50만원
이재연(물리화학·96)	50만원
정권희(화학공학·81)	50만원
정진욱(도시 및 지역개발정책·15)	5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이 사	
정경훈(약학·11)	20만원

연회비 (5월 1일~5월 31일)	
경영대학	
김재인(경영·83)	
소홍석(무역·74)	
공과대학	
김성귀(토목공학·79)	
박종호(토목공학·77)	
변영재(요업공학·68)	
서정철(전기공학·68)	
오병수(기계공학·72)	
이은수(기계공학·81)	

정달성(전기공학·72)	
조대우(요업공학·69)	
최양석(화학공학·89)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인진(농학·66)	
임행진(임학·52)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김길원(법학·65)	
나현숙(공법·87)	
문동길(행정·78)	
배상호(법학·67)	
윤서강(사법·86)	
이승국(행정·90)	
최준동(행정·71)	
사범대학	
김종해(지리교육·81)	
박경자(지리교육·79)	
사회과학대학	
김석병(사회·78)	
송재기(정치외교·72)	
수리과학대학	
고진구(수리·73)	
의과대학	
안영안(의학·75)	

인문대학	
류순범(영어영문·76)	
엄철주(영어영문·79)	
최지희(철학·97)	
한영호(철학·61)	
경영전문대학원	
강대일(경관·27기)	
유병진(경영석사·90)	
이학재(경최·21기)	
허상배(경관·36기)	
황경태(경영석사·94)	
산업대학원	
권오진(토목공학·12)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만의 선택,
완주에 산다!
 오늘이 좋다!

수소로 열어가는 깨끗한 일상, 풍부한 일자리로 활기찬 매일,
 건강한 먹거리로 든든한 내일

